

# 승격을 향하여... 전남 마지막 5경기 사활 건다

## K리그2 막판 우승 싸움 김천상무와 FC안양 대결 압축 4위 전남 준플레이오프 확정 위해 2일 안양전 총력전

승격을 향한 K리그2 팀들의 막판 스퍼트가 이뤄진다.  
올 시즌 K리그2으로 가는 티켓은 최대 2장이다. 1위로 시즌 결승선을 통과하면 '우승팀'으로 K리그1에 직행한다.  
그리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2~4위 팀의 전쟁이 펼쳐진다.

먼저 3~4위 팀이 준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준PO 승자와 2위 팀의 플레이오프가 전개된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1부 리그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승강 플레이오프'를 넘어야 한다.  
K리그1 11위와의 승강플레이오프의 승자가 돼야 비로소 1부행 티켓을 얻게 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K리그2팀들은 '1위'에 올인한다.

이제 5경기 만을 남겨놓고 있는 K리그2에서 우승 싸움은 김천상무와 FC안양의 대결로 압축된 모양새다.  
김천은 17승 9무 5패(승점 51)로 가장 먼저 승점 50점 고지를 밟으면서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51골을 넣었고, 실점은 29로 뒤에서 두 번째다. 득점, 득실차(22)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김천은 최근 4연승으로 11경기 연속 무패(8승 3무)를 기록하는 등 K리그1 복귀에 청신호를 켜다.  
2위 안양은 승점 6점 차로 김천을 추격하고 있다. 5승 3무로 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기록했던 안

양은 앞선 31라운드 안산전에서 0-1패를 당하면서 1위 싸움에 비상이 걸렸다.  
김천과 안양의 '우승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플레이오프를 통한 극적인 뒤집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K리그2 모든 팀에게 남아있다.  
산술적으로는 승점 32점으로 최하위인 부천FC도 준플레이오프 가능성을 남겨뒀다.  
일단은 3위 대전하나시티즌과 4위 전남드래곤즈가 4강행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대전은 승점 48, 전남은 승점 45를 기록하면서 5위 부산아이파크(승점 38)와 격차가 있다.  
남은 5경기에서 대전과 전남이 승점 54점을 만들

면, 다른 팀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준PO 진출을 확정하게 된다.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4강이 아니라 2위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대전과 전남이지만 최근 페이스는 좋지 않다.  
대전은 최근 2연패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전남은 안산 원정에서 0-0 무승부로 승점은 더했지만 앞서 2연패로 주춤했다.  
한편 전남은 10월 2일 안양원정에 나서 3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2위와 4위의 '승점 3점' 이상의 차이가 걸린 뜨거운 경기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생활체육지도자 내년 정규직 전환

### 시체육회, 계획 수립 나서

광주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적인 체육 시설에서 생활 체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기 중목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이들은 그동안 꾸준히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광주시체육회는 29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내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과 계약 체결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정하는데 따른 조치다.

시체육회는 최근 '1차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변호사, 노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78명 전원에 대한 전환기준 및 평가를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10월 중으로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토대로 최종 전환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이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방어벽이 너무 높아"** 2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켈름 울트라아레나에서 열린 WNBA 4강 플레이오프(5전 3승제) 1차전에서 피닉스 머큐리의 가드 키아 너스(왼쪽)가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의 센터 키아 스톱스의 수비벽을 뚫고 레이업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농구, 일본에 5점 차 분패

### 아시아컵 조별리그 62-67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 아시아컵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상대로 분전했으나 5점 차로 아쉽게 졌다.  
정선민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29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일본에 62-67로 패했다.  
2승 1패가 된 한국은 30일 B조 3위와 4강 진출

결정전을 치르게 됐다.  
B조는 호주, 중국, 대만, 필리핀이 속한 가운데 29일 열리는 대만-필리핀 경기 승자가 3위가 된다.  
FIBA 랭킹 19위 한국은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일본(8위)을 상대로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며 분전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도쿄올림픽 멤버 12명 가운데 5명이 나왔다.  
/연합뉴스

## 바둑리그 11월18일 개막...한해원 첫 여성감독

2021-2022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참여하는 9개 팀이 선수 선발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개막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시즌에는 리그 최초로 여성 감독이 선임되고, 전 경기 제한 시간이 1시간으로 통일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됐다. 개막전은 11월 18일 열린다.  
바둑리그 1차 선수 선발식은 28일 지난 서울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다. 9개 팀은 1~3지명 선수를 선발했다.  
"다펜딩 챔피언" 셸트리는은 보호 지명 제도를 활용해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끈 주전 선수 신진서·원성진·강승민·조한승·금지우 등 5명을 모두 묶었다.  
바둑 메카 의정부도 김지석·설현준·이원영·박상진·문민중과 2년 연속 함께하기로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변상일·최철환·이창석·박건호를, 정광장전축은 이동훈·김명훈을, 수려한합전은 박정환을 보호 지명했다.  
보호 연한이 만기된 한국물가정보, 보호 지명을 포기한 키스와 컴투스아이젠, 신생팀 유후(YOU

WHO)는 선수 선발로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드래프트 순번 추첨에서 1번을 뽑은 키스는 신민준을 1지명으로 선발했다. 한국물가정보는 강동윤, 유후는 안성준을 1지명으로 뽑았고, 컴투스아이젠은 박하민을 1지명했다.  
유후는 바둑리그 최초 여성 감독인 한해원 감독이 이끈다.  
바둑리그는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40명의 선수를 추가로 선발한다.  
각 팀은 다음 달 18일 2차 선수 선발식에서 4~5지명 선수와 퓨처스리그 1~3지명 선수를 지명할 예정이다.  
바둑리그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다.  
모든 대국의 제한 시간이 1시간(초읽기 1분 3회)으로 통일된 것도 큰 변화다.  
지난 시즌에는 장고A(2시간) 장고B(1시간), 속기(10분) 경기로 나뉘어 열렸지만,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시즌부터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통일했다.  
총규모 37억원으로 열리는 바둑리그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연합뉴스

## WNBA 라스베이거스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 박지수 1분 27초 출전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했다.  
라스베이거스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미켈름 울트라아레나에서 열린 2021 WNBA 4강 플레이오프(5전 3승제) 1차전 피닉스 머큐리와 홈 경기에서 96-90으로 이겼다.  
라스베이거스 소속인 한국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23·196cm)는 1분 27초를 뛰었으나 개인 기록

을 남기지 못했다.  
두 팀의 2차전은 10월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WNBA에서 세 번째 시즌을 치르는 중인 박지수는 2019시즌에 이어 올해가 자신의 두 번째 플레이오프다. 2019시즌 플레이오프에 처음 출전한 박지수는 당시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평균 0.7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WNBA 4강 플레이오프는 라스베이거스-피닉스, 코네티컷-시카고의 경기로 펼쳐진다.  
/연합뉴스

## 디샘보 412야드 날려 2위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64강에 한국 홍현준·이동혁 등 출전



브라이슨 디샘보(28·미국·사진)가 멀리 치는 대회인 롱드라이브 월드 챔피언십 64강에 안착했다.  
디샘보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메스키트의 메스키트 스포츠 앤드 이벤트 컴플렉스에서 열린 롱드라이브 월드 챔피언십 대회 첫날 조별리그 C조 경기에서 최대 412야드를 기록했다.  
16명이 속한 C조에서 공동 2위에 오른 디샘보는 64강에 진출했다.  
90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5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상위 12명이 64강에 진출한다.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나흘에 걸쳐 최종 우승자를 정한다.  
디샘보는 이날 최장 비거리 412야드를 기록했고, 총 30차례 샷 가운데 400야드를 넘긴 것은 5번이었다.  
같은 조에서 경기한 선수 중에서는 조시 캐서데이(미국)가 417야드를 기록했고, 스코티 피어먼(미국)은 413야드까지 보냈다.  
경기는 5세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 세트 6차례 샷을 날릴 수 있다.  
세트 별로 같은 조의 2~3명의 선수와 경쟁해 가장 멀리 보낸 선수가 200점, 2위 100점, 3위 50점, 4위 25점을 받으며 이 득점의 합계로 조별리그 순위가 정해진다.  
디샘보는 5세트 가운데 1위 3회, 2위 2회로 총 800점을 따내 피어먼(900점)에 이어 2위로 64강에 올랐다.  
지난해 US오픈 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상 8승을 거둔 디샘보와 같은 선수가 이런 롱드라이브 대회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올해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에는 홍현준, 이동혁 등 한국 선수들도 출전했다. 홍현준은 A조 공동 2위로 64강에 올랐고, C조 13위 이동혁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64강 진출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2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3관	기적
4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5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극장판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
6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7관 씨네키움	상지와 텐 링즈의 전설 모가디슈, 캔디맨 국영민 향는 뫼탈과 격돌! 부산광역시 청소년 예술제
8관 씨네키움	용과 주근깨 공주, 수색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1년 10월 11일 - 10.15. (화) - 10.16. (수)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래픽**

일시 : 2021. 10. 01.(금) - 10. 05.(화)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 8237

GAC 11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10. 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